

밀레, 친환경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출시

- 빠른 열전도율, 에너지 소비량 적고 일산화탄소 배출 없어 주부들에게 인기
- 터치센서조절방식, 안전차단기능 등 편리성 및 안정성 두루 갖춰
- 세라믹 상판 채용, 기름때 청소도 간편하게...무상보증기간은 2년

독일명품가전 밀레의 한국법인 밀레코리아(대표 안규문, www.miele.co.kr)는 11일, 빠른 열전도율로 요리시간과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일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는 친환경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5종을 출시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5종(모델명: KM5600, KM5604, KM5803, KM5804, KM5805LPT)은 고품질 하이라이트 히터가 내장돼 신속한 가열 및 고른 열 분포로 가열시간을 단축 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 열이 그릇 밖으로 새지 않아 일반 가스레인지에 비해 에너지 손실이 적다.

신제품에는 전자식 ‘이지 컨트롤’(모델명: KM5600, KM5604)과 ‘다이렉트 컨트롤’(모델명: KM5803, KM5804, KM5805LPT)시스템을 채용해 열세기 단계를 제품 중앙 부분에 있는 +, - 센서버튼 또는 터치식 숫자패드에서 원하는 숫자를 눌러 세기단계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특히 자동신속가열기능이 장착돼 특정한 시간 동안 최대 세기단계에서 작동한 후 사용자가 선택한 세기단계로 자동 변경돼 수동으로 조절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사용 중 조리영역의 불 세기를 잠시 정지시키는 ‘일시정지’ 기능을 채택해 다른 용무로 급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조리중인 음식의 불 세기를 정지시키고, 다시 사용할 때는 이전 상태를 유지해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 또 각 조리영역에 자동꺼짐시간을 최대 9시간 넘게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고 자동으로 꺼지도록 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조리 중 장시간 불의 세기를 조절하지 않거나 음식물이 흘러 넘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열판에 열이 남아 있을 때 잔열량을 램프 전등으로 표시하는 시스템 안전장치를 채택해 호기심 많은 아이들로부터 열로 인해 화상을 입는 위험을 방지해 준다.

이밖에 사용시 일산화탄소의 배출이 없어 가스에 의한 질식, 폭발위험이나 실내 그을음 등 유해가스가 전혀 없으며, 불꽃 없이 조리가 가능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

또 고품질의 세라믹 상판을 채용해 열 저항력이 강하고 표면이 매끈해 음식물 자국, 기름때

도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으며 녹, 부식, 벗겨짐 등의 외관손상이 없다. 출시 제품 중 'KM5805LPT' 모델은 '라이트 프린트 코팅'이 되어 있어 일반 코팅에 비해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무상보증기간은 2년이다.

밀레코리아 윤일숙 마케팅 팀장은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의 고급스런 이미지와 빠른 열전도율, 친환경성 등이 부각되면서 웰빙 가전으로 최근 주부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다”며 “밀레는 최근 전기레인지 판매가 300% 이상 증가해 모델을 5종으로 다양하게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연내 전기오븐과 하이라이트 일체형 제품도 국내에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레 하이라이트 전기 레인지 가격

KM5600- 1,779,000원

KM5604- 1,980,000원

KM5803, KM5804- 2,380,000원

KM5805LPT-2,680,000원

제품 문의: (02) 3451-9451 www.miele.co.kr

(끝)

